

# 《祖堂集》 등에 보이는 '較'의 열등비교 구문 연구

任炳權\*

---

## ◁ 목차 ▷

- I. 머리말
  - II. 열등비교와 그 형식들
  - III. 《祖堂集》의 '較' 비교구문
  - IV. 기타 어류의 '較' 비교구문
  - V. 맺음말
- 

## I. 머리말

비교구문은 형용사 및 형용사성동사(同動詞)가 전치사구 보어·부사어와 목적어 및 비교수량보어 등을 지니는 복합문형 중의 하나로서, 이에 관한 조사는 다른 동사술어의 복합문형 연구와 함께 중국어 문형연구의 한 부분을 이룬다.

唐五代 시기의 비교구문에 관한 조사보고는 별로 많지 않고 대개가 개별적 거례에 그치고 있는데, 馮春田(1992)은 '似'에 의한 비교표현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祖堂集》의 비교문을 집중 조사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비교구문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주의하면서, 《祖堂集》 등에 보이는 唐五代 시기의 특징적 비교형식인 열등비교 구문의 양상들을 살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較'의 용법을 살펴 정리하려 한다.

본고는 비교구문에 관한 이론적 탐구 이외에도, 어휘의미와 문법적 기능이 결합된 개별 허사의 파악이 문법에 관한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서술하려 한다. 그러므로써 당송대 선종어록 열독자들이 비교구문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조당집 국역본 일부 문장에 대한 교정 번역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미를 둔다.

---

\* 精神文化研究院 講師.

본고는 진술의 편의를 위해 비교구문의 형식과 구성요소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임병권1993, <고대중국어 비교문의 문형분류 試論> 참조)

- <x-형-於-y> 與人善言, 囿於布帛.  
남에게 해주는 좋은 말은 옷감보다 따듯하다.
- <x-與-y-형> 將劍與挺劍異.  
칼을 든 칼을 휘두름과 다르다.
- <x-不如-y-형> 吾不如喪之文也.  
저는 조처보다 文辭가 뒤떨어집니다.
- <x-형-y> 孟嘗君名高其主.  
맹상군의 명성은 그 주인(인 왕)보다 높았다.
- <x-형-y-도량> 顏回少孔子三十歲.  
안회는 공자보다 서른 살 어렸다.

(비교항목 및 기호 설명)

- 1)'x, y': 비교되는 두 항목의 명사구. x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로서 y와의 비교에 의해 묘사·판단되는 피비교자. y는 비교대상으로 비교표시 형용사·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며, 일반적 비교구문 구성의 필수적 요소임.
- 2)'형': 비교평면(Dimension)인 性狀을 표시하는 형용사·동사. 표의성의 측면에서 '형(形)'으로 씀.
- 3)於, 與, 不如: 비교대상 y를 목적어로 갖는 개별 전치사(於, 與)나 형용사·동동사(不如, 較) 또는 그 부류를 대표하는 허사.

## II. 열등비교와 그 형식들

비교구문은 의미관계에 따라 동등비교 우열비교 무쌍비교의 셋으로 나뉜다. 동등비교는 피비교자 x가 비교대상 y와 같고·다르고·비슷하고·대등한지 여부를 언급하고, 우열비교는 피비교자 x가 비교대상 y에 비해 어떤 특성(즉, 비교평면)을 더 또는 덜 지녔음을 언급하며, 무쌍비교는 피비교자 x가 그가 속한 범주 안의 모든 동류들 중 어떤 특성에 관해서 절대적 지위에 있음을 언급한다. 열등비교는 우열비교의 한 하위범주로서 '어떤 특성의 면에서 x가 y보다 덜 ~하다'와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

열등비교의 특수성은 형식과 의미의 두 방면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 열등비교를 구성하는 단어는 소수의 몇 가지로 제한되는 폐쇄류인데, 이는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각 시대 중국어 모두에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열등비교 표시단어(즉, 표지)로는 고대중국어에서는 '不如·弗如, 不若·未若, 不及' 등이 사용되며(임병권19

93 참조), 현대 표준중국어에서는 '不如, 沒有~那麼/這樣, 不像~那麼/這樣, 差一點兒' 등이 사용된다. 열등비교구문 구성요소의 배열형식과 해당 예문들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고대 열등비교: <x-不如-y-(형)>

- a.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孟子》)  
천시는 지세의 이로우만 못하고, 지세의 이로운은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
- b. 不聞不若聞之, 聞之不若見之, 見之不若知之, 知之不若行之. (《荀子》)  
안 들음은 들음만 못하고, 들음은 봄만 못하며, 봄은 앎만 못하고, 앎은 실행함만 못하다.
- c. 吾久不見賈生, 自以爲過之, 今不及也. (《史記》84)  
나는 가생을 못 본지 오래인데 내가 그보다 뛰어나다고 혼자서 생각해왔다. 이제 보니 내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
- d. 子犯曰: 「吾不如衰之文也, 請使衰從.」 (《左傳》 僖23)  
저는 文辭가 趙衰만 못합니다. 조쇠로 하여금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2) 현대 열등비교: <x-不如-y-(형)>, <비교평면-x-不如-y>

- a. 晚去不如早去好. 늦게 감은 일찍 감만 못하다.
- b. 我不如她念得流利. 나는 그녀처럼 유창하게 읽지 못한다.
- c. 論手巧, 大家都不如他. 손재주로 말하면 아무도 그만 못하다.

(3) 현대 열등비교: <x-沒有-y-(~麼/~樣)-형>, <x-不像-y-(~麼/~樣)-형>

- a. 這座樓沒有那座樓高. 이 건물은 저 건물보다 낮다.
- b. 她唱歌沒有你唱歌好. 그녀의 노래솜씨는 너보다 못하다.
- c. 他們那裏沒有這兒這麼冷. 그들 있는 곳은 여기처럼은 춥지 않다.
- d. 姐姐沒有弟弟那麼愛打球. 언니는 남동생처럼 공놀이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 e. 我來得沒有他那麼早. 나는 그 사람처럼 일찍 오지는 않았다.

(4) 현대 열등비교: <x-差一點/些>

這兒的東西差一點兒. 여기 물건은 좀 덜 좋다.

둘째, 열등비교의 의미는 형용사의 적극적·소극적 의미와는 별개이며, 동등비교의 부정과도 구분된다. 먼저, 상대적 의미의 형용사들은 고대·현대를 막론하고 다음 (5,6)과 같은 우등비교문을 구성하는데, 이 경우 '少, 弱, 輕' 등은 '열등'을 표

시하는게 아니라 비교항목들이 지닌 상대적 특성의 한 쪽일 뿐이다.<sup>1)</sup> 즉, 열등비교인 (1d)는 <x(吾)가 y(衰)보다 『덜』 '형'하다(文:문채롭다))인데, 우등비교인 (5a)는 <x(顏回)가 y(孔子)보다 『더』 '형'하다(少:젊다))이다.

(5) 우등비교: <x-형-y-(수량)>

- a. 顏回…少孔子三十歲。(《史記》67)  
안회는……공자보다 서른 살이 어렸다.
- b. 使韓簡視師。復曰:‘師少於我,鬪士倍我’。(《左傳》.僖15)  
군사는 우리보다 적은데, 투사는 우리의 두 배입니다.
- c. 我大她三歲。 나는 그녀보다 세 살 많다.

(6) 우등비교: <x-형-於-y>

- a. 楚弱於晉,晉不吾疾也。(左傳.襄11)  
초나라는 진나라보다 약하고, 진나라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 b. 人固有一死,或重於太山,或輕於鴻毛。(《漢書》〈司馬遷傳〉)  
사람은 한번 죽기 마련인데,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 털보다 가볍다.

그리고, 열등비교의 표지 '不如, 沒有'등은 '부정+동등비교술어'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 의한 열등비교문은 '如, 有'등에 의한 동등비교문의 부정과는 다른 의미를 표현하며, 이들 열등비교문은 피비교자 x와 비교대상 y의 위치를 맞바꾼 우등비교문과 같은 의미이다. 예를들면, 다음 (7a)의 '臣如犬馬'를 부정하여 '신하와 개·말을 같지 않게' 보려면 (8)의 문형을 채택하여야 하며, 만약 (\*7b)처럼 '不如'를 쓰면 '신하가 개·말보다 못하게' 보게 된다. 그리고 (2,3)의 열등비교들은 (9)의 우등비교와 같은 의미이다.

(7) 동등비교 <x-如-y-(형)>, <x-형-如-y>

- a. 君之視臣如犬馬,則臣視君如國人。(《孟子》)  
임금이 신하를 개말 보듯하면, 신하는 임금을 평민 보듯한다.
- b. \*君之視臣不如犬馬,則臣視君不如國人.
- c. 帶甲數十萬,乘如丘山。(《史記》)  
甲士가 수십 만이고 군량은 산 같다.

1) 우열비교구문에서 비교평면을 표시하는 형용사·심리상태동사·능원동사는 대부분 적극적 의미이다.

- e. 其遊如父子然.(《史記》)  
그 사림이 마치 부자간 같았다.
- f. 君子之交淡若水,小人之交甘若醴(《莊子》)  
군자의 사림은 담백해기가 물 같고, 소인의 사림은 달기가 醴泉 물 같다.

(8) 동등비교 <x-不-跟-y-一樣-(형)>

- a. 我諸戎飲食衣服不與華同.(《左傳》襄14)  
우리 용족의 음식·의복은 중화의 것과 다르다.
- b. 我們戎族的飲食與衣服不跟華人一樣.
- c. 這座樓不跟那座樓一樣高. 이 건물의 높이는 저 건물과 다르다.

(9) 우등비교 <x-比-y-(형)>

- a. 早去比晚去好. 일찍 감이 늦게 감보다 낫다.
- b. 她念得比我流利. 그녀는 나보다 더 유창하게 읽는다.
- a. 那座樓比這座樓高. 저 건물은 이 건물보다 높다.

### Ⅲ. 《祖堂集》의 '較' 비교구문

'較'의 비교형용사 용법의 시원은 漢 趙起의 《孟子》注와 《世說新語》의 다음 예, '차이가 나다'(10a)와 '뒤지다'(10b)로 쓰인 '覺'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覺'은 '較'보다 앞선 시기문헌자료에서 발견되지만, '비교'의미의 인신관계상 '覺'을 '較'의 통가자로 인정한다.

(10)

- a. 如此賢不肖相覺,何能分寸.(《孟子》의 '則賢不肖之相去,其間不能以寸'에 대한 漢 趙起의 注)  
현명한 이와 부족한 이는 이처럼 차이가 나니, 그것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겠는가.
- b. 魏武亦記之,如侑同,乃歎曰: '我才不及卿,乃覺三十里.'(南朝宋劉義慶《世說新語》)  
"내 재주는 그대에 미치지 못한다. 삼십 리는 뒤떨어진다."  
[清 劉淇는 《助字辨略》에서 '覺'을 「比量之辭」로 봄. 余嘉錫은 《世說新語箋疏》에서 '覺'을 '較'로 쓴 〈山谷外集〉注十五를 인용하여 '覺'을 '較'로 봄.]

'較'의 사전적 의미는 ㉠(동사): (역량을) 겨루다; 셈하다, 비교하다; 따지다; ㉡(형용사): 분명한, 현저한; ㉢(명사): 개요, 대의; ㉣(형용사): 차이나다, 떨어지

다: ㉔(동사): (병이)호전되다: ㉕(정도부사) 좀, 약간, 매우: ㉖(전치사) 비교대상을 이끄는 '比'와 같은 용법: ㉗(校)의 통가자: 검증하다, 校勸하다, 계산하다, 校官 등으로 분류된다(한어대사전). ??

이들 의미항목 중 ㉑~㉔은 '較'의 本義 '전주어 비교함'으로부터 '차이를 셈하고 따짐,' '차이가 분명해짐'과 '비교에 의해 파악된 類的 개요'의 引伸義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㉕~㉖은 唐 이후 용례에 보이는 용법으로, 모두 '비교표현'과 관련하여 새로이 발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차이가 나다'는 '비교'의 결과에 대한 중립적인 판단이며, 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우열·호오의 가치판단을 하면 '떨어지다, 못하다'이다. 부사와 전치사의 용법은 비교표현의 기능이 더욱 허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병이 호전되다'의 용법은 '병증의 (나쁜) 정도가 덜어져 차도가 생긴' 개별화된 의미이다. ㉕~㉖의 대표적 예문은 다음과 같다(통가자인 覺·校 포함).

㉔(열등비교 형용사·동사) '차이가 나다, 떨어지다'

問: "頭頭到這裏時如何?" 師云: "猶較老僧一百步." (18. 趙州)

"일마다 다 여기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노승보다는 백 걸음이 모자라."

㉕(동사) '병증이 덜해지다, 호전되다'

a. 病眼校來猶斷酒, 却嫌行處菊花多. (張籍 <閑遊>시)

눈병이 낫고나서 내쳐 술을 끊어왔는데, 하필이면 가는 길에 국화가 많아.

b. 男女得病阿娘憂, 未教終須血淚流. (<敦煌變文集>5 <父母恩重經講經文>)

낫지 않으면 피눈물을 흘리시고 마네.

c. 我每日割着身上肉, 推做山林內拾得野物肉, 與太子覺餓. (元 狄君厚 <介之推3>)

태자에게 주어 배고픔을 덜게 하였다.

㉖(정도부사) '좀, 약간, 매우'

a. 見右夷陣上, 人緣教多, 前頭忽是弓弩. (<敦煌變文集>2 <轉擒虎話本>)

우측 진을 보니 사람이 매우 많았고 앞쪽엔 모두가 궁수들이었다.

b. 我佛牟尼大法王, 觀見難陀氣悲傷, 兄弟之情慟教切, 運身便即現威光. (<敦煌變文集>4 <難陀出家緣起>)

역시 형제의 정이 간절하여 몸을 움직여 잠입한 광명을 나타냈다.

c. 君歸與訪移家處, 若个峰頭最較幽? (張籍 <胡山人歸王屋因有贈>시)

어느 봉우리가 가장 그윽하던가?

d. 征南幕裏多賓客, 君獨相知最校深. (張籍 <送揚州判官>시)

유독 그대를 가장 깊이 알아주었네.

e. 此間離梁山泊不遠, 地方較近. (<水滸傳>46)

여기서 양산박까지는 멀지 않고 가깝습니다.

f. 茶博士道: '不可高聲, 耳目覺近.' (《水滸傳》72)

큰소리 내지 마십시오, 남들의 이목이 매우 가깝습니다.

g. 冰雪鶯難至, 春寒花較遲. (唐·杜甫〈人日〉시)

눈서리 날리니 피조리 안 오고, 봄이 추우니 꽃이 늦다.

㉠(우등비교 전치사) '比'(~보다)와 같은 용법

今年春較去年晚, 花信十猶餘二三. (清·朱彝尊〈喬侍讀一峰草堂看花歌〉)

금년은 봄이 작년보다 늦어, 꽃 소식이 십이삼일은 있어야리라.

[(x-較-y-형)의 비교구문, '較'는 형용사 '덜하다'가 아니고, 비교전치사 '比'의 역할을 함.]

《조당집》의 '較'에 의한 비교구문은 총 18개 인데, 모두가 위에 분류한 '較'의 비교구문 용법 네 가지(㉠~㉣) 중 '(주어가 목적어보다) 뒤지다, 덜하다, 못하다(差)의 열등비교를 표시하는 형용사<sup>2)</sup> 용법(㉠)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較'는 통가자 '教, 校, 交'로도 표기된다.

비교형용사 '較'의 비교구문은 비교대상인 목적어와 비교결과의 정도·수량을 표시하는 수량보어를 가지는데, 《조당집》의 '較'비교구문은 모두 수량구 보어를 필수적요소로 가지며, '수량' '수명'의 구 또는 '양사' '代詞'의 형태를 띤다.

《조당집》의 '較' 비교구문은 비교대상 y와 비교평면의 표현방식에 따라 다음 네 가지 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비교대상 y는 '較' 뒤의 목적어로 오기도(A), 또 현대중국어의 '比'와 유사한 비교표시 전치사 '與'와 함께 '較' 앞의 부사어로 오기도(B), 또 생략되기도(C) 하며, 비교평면이 전치사 '於'의 구로 '較' 앞에 오기도(D) 한다.

A. <x-較-y-수량>: x는 y보다 '수량'만큼 열등하다.

(11)

a. 師與南泉向火次, 南泉問師: "不用指東指西, 本分事直下道將來." 師便把火筴放下. 南泉云: "饒你與摩, 猶較王老師一線道." 南泉又問趙州. 趙州以手作圓相, 中心一點. 泉云: "饒你與摩, 猶較王老師一線道." 雲門問舉云: "南泉只是步步登高, 不解空裏放下." (14. 杉山)

"이것 저것 돌려 말할 것 없이, 본분사를 직접 말해보시게." 삼산화상이 부젓가락

2) 이 종류의 '較'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의 분류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가능한데, 여기서 는 기타 비교문과의 동질성에 주목하여 일단 형용사로 부르기로 함.

을 내려놓았다. “그대가 그러하다 해도 역시 이 왕선생님 보다는 실 한 가닥만큼 떨어지네.”

- b. 問：“牛頭未見四祖，百鳥銜花供養時如何？”師云：“只爲步步踏佛塔。”見後爲什麼不來？”師云：“直體不來，猶較王老師一線道在。”(《祖堂集》16.南泉)  
 “비록 (더이상) 오지 않게 되었지만, 이 왕선생님과 견준다면 아직 실 한가닥만큼 차이가 나.”

(12)

- a. 泉云：“饒你與摩，猶較王老師一線道。”(14.杉山) [윗 예문 (11a)의 번역 참조]  
 b. 雲岳補草鞋次，藥山問：“作什麼？”岳對云：“將敗壞補敗壞。”藥山不肯云：“即敗壞非敗壞。”師云：“藥山與摩道猶較一節在。”僧問：“和尚如何？”師云：“汝猶較一節在。”僧云：“學人則與摩較和尚一節在，未審作摩生則得盡於師機？”師云：“汝須親自道始得。”(10.長慶)  
 “약산외상의 이 말은 아직 한 마디가 부족하다.”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도 한 마디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화상보다 한 마디가 떨어지지만, 어떻게 하면 화상의 기틀을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B. <x-與-y-較-수량>: x는 y보다 ‘수량’만큼 열등하다.

(13)

- a. 問：“太尉相公送繩床，和尚將何報答？”師云：“天津橋上無異路，報答之心性不殊。”僧云：“與摩則相公慙慙，師之不謬。”師云：“我道毗盧不點頭，你作摩生？”僧云：“學人到這裏直得無言可進。”師云：“體你與摩，亦與老師較一掬地。”(11.睡龍)  
 『태위께서繩床을 보내어 주었으니 화상께서는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천진교(天津橋) 위에는 단 길이 없고, 보답하려는 심성이란 자연스런 거지,』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태위의 정성을 욱되게 않으시겠습니까?』 『내 생각엔 비로자나 불이 수궁 안 할 것 같은데, 그대는 어떤가?』 『저는 여기에 이르러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대가 그렇다 해도 역시 노승보다는 한 단계 밀이야.』  
 b. 師共歸宗行次，歸宗先行，師落後，忽見大蟲草裏出。師怕不敢行，便喚歸宗，歸宗轉來一喝，大蟲便入草。師問：“師兄見大蟲，似个什麼？”歸宗云：“相似猫兒。”師云：“與王老師猶較一線道。”歸宗却問：“師弟見大蟲，似个什麼？”師云：“相似大蟲。”(16.南泉)  
 “사형계선 호랑이가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고양이처럼.” “역시 이 왕선생님과는 신 한가닥이 차이가 나는군요.” “사제는 호랑이가 무엇처럼 보이는가?” “호랑이처럼요.” [이 문장은 남전스님이 자신과 귀종스님의 견해가 서로 다름을 말할 뿐 우열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도 있음. 그러나 유사용례로 볼 때, 이 역시 남전스님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C. <x-較-수량>: x는 ‘수량’만큼 열등하다.

비교대상 y가 ‘較’ 뒤에 오지 않은 구문은 다음 (14,15)의 둘로 나뉜다.



(14)의 비교구문은 피비교자 x가 문장의 주어로 오고, '級, 節'과 같은 구체적 양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우열관계를 비교하는 느낌이 비교적 분명하고, 쉽게 복원할 수 있는 비교대상 y를 단순히 생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4)

- a. “只如龍花之會,何異於靈山?” 師云:“化城教一級.”(11.齊雲)  
“용화회상(미륵)은 영산회상(석가)과 어떻게 다릅니까?” “마가다의 것(영산회상)이 한 급 떨어지지.”
- b. 師云:“藥山與摩道猶教一節在.” 僧問:“和尙如何?” 師云:“汝猶教一節在.”(10.長慶)  
(앞 예문 (12b)의 번역 참조)

(15)의 비교구문은 주어가 생략되었고, '些子'('약간, 좀, 꽤')를 수량보어로 쓰고 있다. 비교항목이 비명시적이고, 비교결과에도 불특정 수량을 표시하는 부정량사를 사용한 이들 예문은 우열관계 비교의 느낌이 약하고 주어에 대한 단순한 묘사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비교항목들을 추정하고 기저의미를 살피면 이 역시 열등비교의 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15)

- a. 伏牛和尙與馬大師送書到師處, 師問:“馬師說何法示人?” 對曰:“卽心卽佛.” 師曰:“是什麼語話?” 又問:“更有什麼言說?” 對曰:“非心非佛, 亦曰不是心, 不是佛, 不是物.” 師笑曰:“猶蟹些子.” 伏牛却問:“未審此間如何?” 師曰:“三點如流水, 曲似刈禾鎌.” 後有人舉似仰山, 仰山云:“水中半月現.” 又曰:“三點長流水, 身似魚籠衣.”(3.慧忠)  
“마대사는 제자들에게 뭐라 가르치던가?” “마음이 곧 부처라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밖에 또 뭐라 가르치던가?” “마음도 부처도 다 아니라고, 또 달리는 마음도 부처도 물건도 다 아니라 하십니다.” “역시 좀 그렇군.” “여기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 점은 흐르는 물 같고, 굽은 획은 벼베는 낫 같아. (마음심(心)자의 묘사) [이 경우, ‘비슷하군!’ ‘괜찮군!’ ‘좋은데!’ 등의 완곡표현으로 워더라도, 역시 자신의 입장을 굽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b. 師…因舉太子初下生時, 目視四方各行七步, 一手指天一手指地云:“天上天下唯我獨尊.” 慶却云:“不委太子登時實有此語, 爲復是結業家語? 直饒登時不與摩道, 便是目視四方, 猶較些子.” 師問:“什麼處你?” 慶云:“深領閻梨此一問.” (10.安國)  
[你: 昵의 의미]  
(안국)선사가 이야기를 꺼내어, (식달)태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눈을 돌려 사방을 굽어보고 각각의 방위로 칠보씩을 견고,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가 가장 높다, 한 것을 말하였다. 長慶은 말하기를, 『태자가 그 때에 실제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경전) 절집자가 끼워 넣은 말이겠습니까? 그 때 그런 말은 안 했다고 하더라

- 도, 눈을 돌려 사방을 굽어본 것 역시 좀 그렇습니다(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디가요?」 「스님의 이 질문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 c. 師舉佛日見夾山因緣,云:“古人道:‘自己尙似怨家,豈況從人得?’ 與摩判斷,堪與人爲眼? 爲復不堪與人爲眼?” 對云:“雖然如此,猶較些子.” 師云:“自己尙似怨家,爲什麼道較些子?” 對云:“唯有這個見解.” 師云:“只如檢點底人,眼作麼生?” 對云:“遇茶則喫茶.” 師云:“此人還檢點人也無?” 對云:“傳來則不可.” 師云:“未傳時作麼生?” (無對.) 師代云:“喫茶,喫飯.” <13.報慈>  
「그렇다 해도 아직 비슷함 뿐입니다.」 「자기자신조차 원수 보듯 함이 어땠길래 ‘비슷하다’ 말하십니까?」 「그런 견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 d. 師云:“德山老漢只憑目前一个白棒曰:‘佛來也打,祖來也打.’ 雖然如此,交些子.” <7.巖頭>  
“덕산 노인네는 눈 앞에 흰 봉하나만을 의지하여 ‘부처가 와도 때려주고, 조사가 와도 때려준다’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

D. <x-於-비교평면-較-수량>: x는 ‘비교평면’에 있어서는 ‘수량’만큼 열등하다.

(16)

- a. 靈臺問德山:“從上宗乘, 和尙此間如何裏授與人?” 德山云:“我宗無語句, 實無一法與人.” 師聞舉云:“德山老漢一條脊梁骨拗不折, 雖然如此, 於唱教中猶較些子.” 保羅拈問長慶, “岳頭平生出世有什摩言教過於德山, 便道猶較些子?” <7.巖頭>  
“이 덕산 노인네 등뼈는 좀처럼 굽어질 줄을 몰라. 그렇다 해도 교법을 펼치는 면에서는 좀 그렇지.” “암두화상은 평생에 덕산화상보다 뛰어난 무슨 가르침을 펼기에 그렇게 ‘그래도 좀 떨어진다’ 했습니까?”
- b. 招慶因舉, “僧問德山:‘從上宗乘, 和尙此間如何裏受與人?’ 德山云:‘我宗無語句, 實無一法與人.’ 岳頭云:‘實即實, 於唱教中猶交些子.’” 師拈問招慶: “岳頭平生有什摩言教過於德山?” <11.保羅> [윗 예문 번역 참조]

#### IV. 기타 어료의 ‘較’ 비교구문

《조당집》과 동시대 또는 이후의 다른 언어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수집된 비교표현 예문을 살펴보면, 열등비교의 형용사 ‘較’가 문형과 의미해석에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고, 문법적 기능 역시 우등비교에까지 번져갔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어료에 보이는 ‘較’의 용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못하다, 뒤진다, 떨어진다’의 비교형용사 ‘較’: 둘째, ‘괜찮다, 좋다, 낫다’로 해석되는 ‘較(些子)’: 셋째, 현대의 ‘比’(~보다)처럼 비교대상을 이끄는 우등비교표시 전치사 ‘較’.

첫째, '較'가 '~보다 못하다, 뒤진다, 떨어진다'의 비교형용사로 쓰인 기타어로 예문의 문형은 제3장에서 정리한 《조당집》의 네 가지 문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약간의 변형들도 보인다.

예문 (17)의 문형은 《조당집》의 것과 같은데, (18)에서는 비교대상 표시 전치사로 '共'을 쓴 예가 보인다.

(17) A: <x-較-y-수량>

問曰：“只如迷僧辭去幾時卻來。”師曰：“他只知一去，不解再來。”其僧歸堂，就衣砵下坐化。靈峰上報師，師曰：“雖然如此，猶較老僧三生在。”(《傳燈錄》<洞山良价>)  
 “그는 한번 갈 줄을 알 뿐, 다시 올 줄은 몰라.” 그 중은 禪堂으로 돌아가 자신의 의발 밑 자리에 가 앉아서 죽었다. 설봉스님이 올라와 화상께 보고하였다. “그렇다 해도 역시 나보다는 세 번의 생만큼 뒤떨어진다.”

(18) B <x-共-y-較-수량>

- a. 與兄行年較一歲，賢者是兄愚者弟。(唐·杜甫 <狂歌行贈四兄>시)  
 형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지만, 지혜로우면 형이고 어리석으면 동생 하자시네.
- b. 若無水殿龍舟事，共禹論功不較多。(唐·皮日休 <汴河懷古>시)  
 수궁과 龍舟의 일이 없었더라면, 그 공은 禹임금과 비교하여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리라.  
 [‘多’는 수량구 대신 수량을 표시하는 형용사를 쓴 것. ‘較多’는 ‘술어-정도보어’의 구조.]
- c. 性靈比鶻爭多少，氣力登山較幾分?(曹松 <拜訪陸處士>시)  
 성령이 학에 못 미치신가, 기력이 산에 못 미치신가?  
 [‘爭’ 역시 ‘떨어지다, 차이나다’의 비교형용사임. ‘鬪’은 ‘도달하다, 대등하다’로부터 ‘比’와 같은 의미를 발전시킨 비교대상 표시, 즉 ‘與, 共’과 인 것으로 의심되어 일단 이 문형의 예로 분류함.]

예문 (19,20)의 문형은 예문 (18)의 문형B에 부속될 수 있는데, 《조당집》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의미와 구조가 약간의 특수성을 띤다. 예문 속의 ‘不較多, 不較些, 較幾許’는 모두 ‘비슷하다, 별 차이 없다(差不多)’로 해석될 수 있어 열등 비교의 어감이 미약하다. 이는 부정사 ‘不’을 비교대상의 전치사구(共-y)와 술어(較) 사이에 둔 구조(19)<sup>3)</sup>, 그리고 ‘較’의 비교술어 앞에 비교항목들을 나란히 배열한 구조(20)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며, 그 기저 구조를 살피면 여전히 열등 비교의 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3) 예문 (19)의 ‘不’의 위치는 제2장 (8)의 문형과는 대조적이며, 이 경우 ‘不較多, 不較些’는 ‘부사어-술어’의 구가 아닌 일종의 복합 단어로 인식되는 어휘화를 일으키게 된다.

(19) B2 <x-共-y-不-較-수량> (부정형식)

- a. 若無水殿龍舟事, 共馬論功不較多. (唐·皮日休 <汴河懷古>詩)  
수궁과 龍舟의 일이 없었더라면, 그 공은 馬입금과 비교하여도 크게 차이하지 않았으리라.
- b. 毳毼金帶誰堪比, 還共黃鸞不較多. (唐五代·孫光憲 <楊柳枝>詞)[毳/삼, sān/]  
휘휘 늘어진 황금 띠를 누라서 비길손가, 노란 피꼬리와도 비슷하구나. [피꼬리에 건주어도 별로 지지 않는다.]
- c. 典虱都來不較多. [拊]挑筋斗太嘍囉. 忽然管著一藍子, 有甚心情那你何?(唐五代·李貞白 <詠狗蚤>詩)  
생긴 건 대체로 이와 비슷한데, 펄쩍펄쩍 튀어오르는게 너무 멋있구나. [이보다 별로 덜할 것 없이 못생겼는데……]
- d. 我也深知你見解, 酌度你根幾, 典維摩不較些些, 爲甚如今謙退?(《敦煌變文集》5《維摩詰經講經文》)  
그대의 근거를 짐작컨대 유마힐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

(20) B3 <x-y-較-수량>

師一日見龐居士來, 便拵卻門曰: “多知老翁, 莫與相見.” 士曰: “獨坐獨語, 過在阿誰?” 師便開門, 纔出被士把住曰: “師多知, 我多知?” 師曰: “多知且置, 閉門開門, 卷之與舒, 相較幾許?” 士曰: “祇此一問, 氣急殺人!” (《五燈會元》5《大同濟》)  
누가 더 영리한가는 놔두고, 문을 닫고 여는 것, (주먹을) 쥐고 펴는 것, 이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내(대동화상)가 문을 닫았다가 연 행동은 그대(방거사)가 잡았다 놓은 행동에 별로 진배 없다.]

비교대상 y를 생략한 예문 (21, 22)의 문형과 의미는 조당집의 것과 같다.

(21) C <x-較-수량>

- a. 裴相國休……, 又請師至郡以所解一編示師. 師接置於坐, 略不拔閱, 良久云: “會麼?” 公云: “未測.” 師云: “若便怎麼會得猶較些子.” (《傳燈錄》 <黃檗希運>)  
“그렇게 깨달아냈다 해도 역시 좀 부족합니다.”
- b. 忠國師……問曰: “馬大師以何示徒?” 對曰: “卽心卽佛.” 國師曰: “是甚麼語話?” 良久又問曰: “此外更有什麼言教?” 師曰: “非心非佛, 或云不是心, 不是佛, 不是物.” 國師曰: “猶較些子.” 師曰: “馬大師卽怎麼, 未審和尚此間如何?” 國師曰: “三點如流水, 曲似刈禾鎌.” (《傳燈錄·伏牛自在》) [앞 예문 (15a)의 번역 참조]
- c. 僧問: “古鏡無瑕時如何?” 師良久. 僧云: “師意如何?” 師云: “山僧耳背.” 僧又舉前問, 師云: “猶較些子.” (《傳燈錄》 <禪籍>)  
“내가 귀가 어두워.” 중이 다시 앞서의 질문을 꺼내자 화상이 말했다: “역시 좀 부족하군.”

(22) D <x-於-비교평면-較-수량>:

“德山老人一條脊梁骨硬似鐵，拗不折。然雖如此於唱教門中猶較些子。”(《傳燈錄》  
〈德山宣鑿〉)

“그렇다 해도 교법을 펼치는 방법에서는 좀 부족해.”

둘째, '較些子'는 '較'의 비교구문 문형A에서 비교대상 y를 생략한 형태인데, 이들은 특정 환경 속에서는 '괜찮다, 낫다'로 해석된다. 예문 (23)에서는 x가 y보다 '좀 더 나은 편'이며, y는 보통 전후 문맥 속에 암시되거나 언급되어 비교적 쉽게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예문은 범위부사 '唯, 只, 直(오직, 단지)'등으로 피 비교자를 제한하고, 어기부사 '始(이제야, 비로소, 겨우)'로 술어의 진술내용이 '호전 또는 달성'된 사태임 표시하기도 한다.

열등비교의 '較'가 이렇게 정반대 방향의 의미를 표시하게 된 것은, 비교항목 전체에 대한 화자의 관점과 태도에 따라 전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화자는 눈이 매우 높다. 화자의 눈으로는 x와 y 둘 다 불만스러운 나쁜 수준인데, 그 중 'x가 y보다 좀 덜한 편이다.' 즉, '덜 나쁜 것'이 '괜찮은, 좀 나은 것'으로 바뀐 것이다. 예문 (24a)는 나쁜 상황 속에 출현한 덜 나쁜 사태를 좋은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24b)의 '較'는 동사 '병이 낫다'로도 또 비교형용사 '덜하다'의 용법 둘 다로 설명될 수 있는 예이다.

(23) 〈y……x-較-些子〉 'x는 좀 나은 편이다'

- a. 僧問：“南泉云，‘狸奴白牯卻知有，三世諸佛不知有。’爲什麼三世諸佛不知有？”師曰：“未入處死時猶較些子。”(《傳燈錄》〈長沙景岑〉)  
“남전스님이 ‘산고양이와 흰소는 그것을 알지만, 삼세제불은 그것을 모른다’ 하셨는데, 삼세제불은 왜 그것을 모르지요?” “늑야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지.” [y: 늑야원실립 이후의 부처님]
- b. 僧問：“已事未明，乞和尙指示。”師良久曰：“吾今爲汝道一句亦不難。只宜汝於言下便見去，猶較些子。若更入思量，卻成吾罪過，不如且各合口，免相累。”(《傳燈錄》14 〈藥山〉)  
“그러나 네가 말 끝에 바로 보아버려야 하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일이겠다. 만약 다시 思量에 빠지면 거꾸로 내가 죄를 짓게 된다.” [y: 사랑에 빠짐]
- c. 制犢鼻禪，書歷代祖師名字，乃曰：“唯有文殊普賢較些子，且書於帶上。”(《五燈會元》15 〈玉泉承皓〉) [帶: 바지끈(禪帶), 犢鼻禪: 쇠코잠방이.]  
쇠코잠방이를 만들어 그 위에 역대 조사의 명호를 쓰면서 말하길, “문수·보현만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니, 허리끈에다 써놓아야지.” [y: 다른 조사들]
- d. 我見八十餘員知識，只有你較些子。(《聯燈會要》13 〈後記〉)  
“知識 팔십 명 남짓 보았지만, 유독 그대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y: 팔십 남짓의 知識들]

- e. 所以道, 天不能蓋, 地不能載, 日月不能照, 無佛處獨稱尊, 始較些子. (<碧巖錄>7)  
하늘로도 안 덮히고, 땅에도 안 실리고, 해와달에도 안 비추이고, 부처도 없는 곳에서 혼자 존귀하다 일컬음, 이거라면 그럴 듯하겠다.
- f. 且道, 此箇是什麼? 若喚作佛, 頭上安頭; 若喚作法, 無繩自縛. 祖師巴鼻是抱膝叫屈, 向上機關是揚聲止響; 直得續不恁麼, 始較些子. (<圓悟佛果語錄>1)  
조사 코백기는 장물을 끌어안고 억울하다 소리치는 이물이고, 그 위의 機關이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일이다. 끝내 그러지 말아야 비로소 좀 쓸모가 있게 된다.

(24) [(불평, 고통, 위험이) 좀 덜하다 → 낫다]

- a. 他人騎大馬, 我獨跨驢子. 回顧擔柴漢, 心下較些子. (王梵志 시 317)  
남들은 큰 말을 타는데, 나만 나귀를 타는구나. 고개 돌려 땀감진 나뭇꾼을 보니 마음이 좀 편찮아진다.
- b. 且來病患較些, 悶坐不過. (明·湯顯祖 <牡丹亭·拾畫>)  
요즘 병이 좀 나으니, 답답해 못 앉아있겠다.  
[‘덜하다’의 ‘較’에 의한 비교구문 <x-較-y-수량>에서 비교대상 ‘以前’이 생략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셋째, ‘較’가 현대의 ‘比’(~보다)처럼 비교대상을 이끄는 우등비교표시 전치사로 사용된 예가 清代의 자료에 보인다. 이것은 중국어 허사에 흔히 보이는 문법기능 변집(또는 남용)의 예이다.

(25) E <x-較-y-형>. x는 y보다 더 ‘형’하다. (較=比)

今年春較去年晚, 花信十猶餘二三. (清·朱彝尊 <喬侍讀一峰草堂看花歌>)  
금년은 봄이 작년보다 늦어, 꽃 소식이 십이삼일은 있어아리라.

## V. 맺음말

이상으로 비교적 특수한 문형인 열등비교 구문을 구성하여 ‘차이나다, 떨어지다, 못하다, 부족하다’ 등을 의미하는 ‘較’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당집> 등의 어료에 보이는 ‘較’의 열등비교 문형은 아래와 같은데, 수량구가 술어 뒤에 온 문형 B와 문형 D는 다른 시대 비교구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較’ 비교구문 특유의 문형이다. 문형 C는 현대중국어의 ‘差一點: 好一些’류와

비교된다. 그리고 문형 Ⅱ의 우등비교 용법은 다른 중국어 허사에서도 보이는 일종의 문법기능의 변집(남용)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A. 〈x-較-y-수량〉: x는 y보다 '수량'만큼 열등하다.
- B. 〈x-與-y-較-수량〉: x는 y보다 '수량'만큼 열등하다.
- B2. 〈x-共-y-不-較-수량〉 [부정형식 '不較多']
- B3. 〈x-y-較-수량〉 [비교항목 병렬형식]
- C. 〈x-較-수량〉: x는 '수량'만큼 열등하다.
- D. 〈x-於-비교평면-較-수량〉 x는 '비교평면'에 있어서는 '수량'만큼 열등하다.
- E 〈x-較-y-형〉. (較=比) x는 y보다 더 '형용사'하다.

둘째, 통가자 '覺, 教, 校, 交'로도 표기되는 열등비교의 '較'는 고대중국어의 '不如, 未若, 不及'류에 이어 나타난 비교적 드문 문법형식의 하나이다. '較'의 열등비교 표시 용법은 멀리 漢代에 이미 口語적 기초가 있었고,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미 〈x-較-y-수량〉의 문형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그리고 唐五代에 이르러 용법이 다양화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열등비교를 표시하는 '較'는, 그 의미는 '不如'와 같지만 문법구조는 우등비교 형용사의 것을 채용한다. 그래서 문형 A: 〈x-較-y-수량〉를 기본 형식으로 하는데, 이 문형에서는 〈형용사-목적어-수량보어〉라는 복합술어 구조 자체가 '비교'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동시에 그 표지이다.

넷째, 《조당집》 등의 한정된 자료에 의하면, 열등비교의 '較'비교구문은 비교문 구성항목을 배치·이동·생략하는 여러 문형변환 가운데서 모두 수량보어를 필수적요소로 가지는데, 이들 수량보어는 '一百步, 三生, 一線道, 一節, 些子, 多, 幾許' 등의 형태를 띤다.

다섯째, '較'가 '괜찮다, 낫다'와 '병이 호전되다'로도 사용되는 현상은, 열등비교의 '덜 ~하다'라는 의미가 비교적 특수한 화자의 관점과 사태와 결합하여 '덜 나쁘다'를 표현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 《祖堂集》 高麗大藏經 第45. K.no.1503  
《祖堂集》 據日本花園大學圖書館藏高麗覆刻本影印, 禪學叢書之四, 柳田聖山 主編, 中文出版社, 1972  
월운 1994 《祖堂集(1,2)》 한글대장경 사전부1·2, 東國譯經院  
香坂順一 1983 《白話語彙の研究》 東京:光生館  
香坂順一著 白維國·江藍生 譯, 1997 《白話語彙研究》 北京:中華書局  
志村良治著 江藍生·白維國 譯 1995 《中國中世語法史研究》 北京:中華書局  
太田辰夫著 蔣紹愚·徐昌華 譯 1987 《中國語歷史文法》 北京:北京大學出版社  
柳士鎮 1992 《魏晉南北朝歷史語法》 南京:南京大學출판사  
〔清〕劉淇 著, 章錫琛 校注, 1954 《助字辨略》 北京:中華書局  
張相 1985 《詩詞語辭匯釋(上下)》 北京:中華書局  
王鎔·曾明德 1991 《詩詞曲語辭集釋》 北京:語文출판사  
江藍生 1988 《魏晉南北朝小說詞語匯釋》 北京:語文출판사  
羅竹風 主編 1990, 《漢語大詞典》〔12冊〕 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第1版第4刷.  
梅祖麟 1990 〈唐宋處置式的來源〉:《中國語文》1990년 3기  
太田辰夫 1988 〈祖堂集語法概說〉:《漢語史通考》, 東京:白帝社  
馮春田 1992 〈唐五代某些語法現象淺析〉:《隋唐五代漢語研究》, 濟南:山東教育出版社  
任炳權 1993 〈고대중국어 비교문의 문형분류 試論〉:《中國文學研究》 제11집

### 【中文提要】

本文從《祖堂集》及其他語料中蒐集以‘較’表現‘差比’的比較句, 進而觀察討論該類句的特點, 其研究結果如下:

第一:‘較’所構成的比較句, 出現五種類型.

- A. 〈x-‘較’-y-數量〉:
- B. 〈x-‘與’-y-‘較’-數量〉:
  - B2. 〈x-‘共’-y-‘不’-‘較’-數量〉
  - B3. 〈x-y-‘較’-數量〉
- C. 〈x-‘較’-數量〉:
- D. 〈x-‘於’-比較面-‘較’-數量〉
- E. 〈x-‘較’-y-形容詞〉(較=比)

此五類句型之中, 除了E句型表示優等比較以外, 其他四種都表示劣等比較.



第二: '較'所表示'差, 相差, 比不上'意義的'劣比'功能, 早在漢代已經奠定口語上的基礎, 六朝時期樹立(x-'較'-y-數量)的基本句型, 至唐五代擴展到其他句型.

第三: '較'的劣比句裏, (形容詞-實語-數量補語)的結構本身具有表示'比較'意義的語法功能, 各種此類句型都必須要用數量詞組當做比較數量補語.

第四: '較'所表示的'好一些, 可以和'痊癒, 治療'的意味, 可以說是從表現'痛苦·不滿'等不好的情況減輕了一些'等用法中發展出來的.

第五: 數量詞組放在謂語後面的句型B·D, 是不見於其他比較句類型的特殊形式, '較'在句型E中表示跟'比'相似的'優比'功能, 也可以說是漢語虛詞所見語法功能的擴散或濫用現象之一.

### 【주제어】

열등비교, 우등비교, 비교항목, 비교평면, 비교결과, 선중어록, 비교수량보어